

# 씀씀이 커진 5월… 주담대 정체에도 가계대출 5兆 증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 7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5조원 늘면서 서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입주 물량 축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했으나 '씀씀이'가 커지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9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843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4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특히 5개월 연속 증가폭을 키우며 지난해 12월(5조4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커졌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220조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4조2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통상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19.5월말		잔액	
	연중	5월	연중	5월	연중	3월	4월	5월		
·은행 가계대출 <sup>1)2)</sup>	58.9	6.3	60.8	5.4	15.9	2.9	4.5	5	843.6	
(주택담보대출) <sup>3)</sup>	37.2	3.8	37.8	2.9	14.4	2.8	3.7	2.8	622.4	
(기타대출) <sup>4)</sup>	21.6	2.5	22.6	2.4	1.6	0	0.8	2.2	220	

주 :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자료=한국은행 ※정책모기지론 포함 연합뉴스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가 많아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영향이 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 등으로 계약금 납부 수요가 늘면서 증가폭이 커진 영향도 반영됐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은 2만3000호로 전월(1만4000호) 대비 증가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622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000억원늘어나는데 그쳤다. 4월 증가폭(3조7000

억원)에 비하면 1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는 신규 입주물량과 전세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 커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만호로 전월(1만1000호)보다 소폭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1000호로 1~3월 평균치(2만2000호)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집단대출이 발생하는데 지난 1~3월에 비해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집단대출 규모가 축소됐다"며 "전

세 거래량도 전월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기업대출도 줄었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6조원 늘어난 849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전월(6조6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 4월 대출 재취급 요인이 없어진 데다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을 늘리면서 증가폭이 6000억원에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이 중소법인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전월

(5조원) 대비 확대된 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원 늘어난 323조4000억원이었다. 증가 규모는 전월(2조4000억원)보다 줄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지난 4월 5조2000억원 감소에서 7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하며 한 달 새 1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4월 -13조6000억원에서 5월 3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고, 같은 기간 정기예금이 지방정부 유입으로 7조5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약 13조원 증가라는 수치는 낮설겠지만 은행 수신은 변동성이 높다"며 "통상적으로 기업은 4월에 빠진 결제성 자금을 MMF(미니마켓펀드)에서 빼서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넣는다"고 설명했다. 이 영향으로 자산운용사 수신 증가폭은 4월 16조9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MMF 범인자금이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주 기자 hjs@metroseoul.co.kr

## 5월 취업자 20만명 회복… 고용률 '최고', 실업자 수 '최다'

전년比 지난달 취업자 25만9000명↑  
실업자 2000년 이후 5월 기준 최대

10만명대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다.

15~64세 고용률은 5월 기준으로 30년 만에 최고였지만, 실업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4%대 행진이 나타나는 등 훈재된 고용 성적표가 나왔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2만 2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 9000명 늘었다.

지난해 1월까지 20만~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작년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월(1만 9000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했다.

그러나 올해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에 회복세를 보였고, 4월 다시 10만명대(17만1000명)에 그치며 주춤했지만, 지난달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7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했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35만4000명), 50대(10만9000명), 20대(3만4000명)에서 증가했지만, 40대(-17만7000명)와 30대(-7만3000명)는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감소세는 2015년 11월부터 43개월째다. 다만 통계청은 30~40대 가인구 감소 계층이기 때문에 고용률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상용근로자(33만명)와 일용근로자(1만7000명)는 늘었지만 임시근로자(-3만명)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8000명 증가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9년 1월 통계작성 시작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으

로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조사기준(구직기간 4주)으로 5월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래 가장 많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실업자는 경기가 나빠질 때도 증가하지만 경기가 풀려 구직활동이 늘어날 때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업자 증가가 항상 부정적인 신호는 아닐 수 있다"며 "이달 지표를 보면 고용률이 상승세이고 실업자 증가 폭도 둔화했기에 구직자의 진입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4%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6월~2000년 5월 12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1년 전 같은 달보다는 0.6%포인트 하락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2%로 1.0%포인트 올랐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대형사는 고정이하여 신비율 감소

국내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자산 건전성과 순이익이 모두 줄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내놓은 '2019년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 신비율은 5.2%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SBI·OK·웰컴·JT친애 등 대형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 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1%포인트 감소하면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 신비율 증가는 여신영업을 확대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차주가 대부분 리스크를 보유한 취약자주라는 특징이 있다"며 "저축은행 업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건전성이 후퇴했지만 대형사들의 경우 오히려 고정이하여 신비율이 감소해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2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가 줄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면서 이자이익을 늘렸으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났고, 급여 등 판매관리비가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까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올려 연 20% 이상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대부업, 연체이자 마음대로 못 올린다… 가산 3%p로 제한

10%대 담보 비중 늘어 필요성 커져

#.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대부업을 통해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매일 14만 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연 이자율은 최고 288%로 불어났고, A씨는 연체로 불어난 빚을 막기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1500만원 가량의 빚을 떠안게 됐

다. 결국 A씨는 불법 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고, 미상환 채무액만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와 채무관계를 종결했다.

오는 25일부터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을 연 3%포인트로 제한한다. 최근 대부업체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

이 연체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대 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한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2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p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